

### 재테크·창업·노후대비...“더 늦기 전에 배우자”

# 평생교육원 열기 뜨겁다

#### 전대·조대·호대·광주대·동신대 등 ‘복직’

광주·전남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원에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다.

자녀 교육이나 가사부담에서 벗어나 뒤늦게 자기개발에 나선 전업주부,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새로운 일거리를 준비하는 퇴직자, 경제난 속에 창업을 모색하거나 퇴직 후 노후에 대비하려는 직장인 등 신분과 동기도 다양하다.

대학들도 유명 강사를 초빙하거나 장래 비전 있는 강자를 속속 개설, 수강생들을 끌어 모으며 평생교육 붐을 지피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12년부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강화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7년 문을 연 전남대 평생교육원은 개원 당시 1학기당 수강생이 9개 과정에 460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130개 과정에 3천500명, 2006년 140개 과정에 3천600명으로 많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49개 과정에 3천850명에 달하고 있다. 10년 동안 강좌 수는 16.5배, 수강생은 8.4배 늘어난 셈이다.

전남대는 이외 지난 1998년 진도군, 2003년 완도군, 2005년 함평군, 2007년 영광군 등 4개 군과 잇따라 평생교육 위탁협정을 맺고 이들 군에 강사를 파견, 현재 23개 과정에 1천 500명을 상대로 교육 중이다.

광주대 평생교육원도 올 1학기에 50개 과정에 804명이 수강신청해, 지난 2005년 1학기 29개 과정·507명,

2006년 1학기 42개 과정·635명 등에 비해 과정 수와 수강생 수 모두 늘었다. 조산대·호남대·동신대·광주여대·남부대 등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인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수강생이 몰리는 과정은 거의 모든 대학이 개설한 ‘부동산 경제’, 부동산 투자가 중요 재테크 수단으로 입지를 굳히면서 2~3년 전부터 정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다. 전남대 평생대학원의 경우 매 학기 주·야간반에 각 70~80명씩 몰리고 있다.

“논술지도자” 과정 역시 2008학년도 입학부터 주요 대학이 통합논술을 도입하는 등 대학 입시와 학교 교육에서 점차 논술교육이 중시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대개 자녀를 직접 가르치려는 학부모와 뒤늦게 논술교육에 나선 일선 학교 교사들이다.

현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시행 중인 ‘방과 후 학교’에 맞춰 개설한 ‘방과후학교 아카데미’ 자격증 과정도 관심을 끌고 있다. 동신대 평생교육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원 40명을 훌쩍 넘어섰다.

사회 유명인을 강사로 초청하는 ‘21세기 지도자 과정’이나 ‘신지식인 아카데미’ 과정도 개인사업자나 직장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노인교육이나 놀이·웃음·미술치료 등 심리상담계열 과정에도 유치원교사나 일선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몰리고 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개설 과정 역시 재테크, 창업, 노후대비 등과 밀접한 실용교육 위주로 편성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경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가장 인기 높은 강좌인 부동산경제과정. 평일 오후 3시인데도 강의실이 수강생들로 꽉 차 있다. /최태경기자 choi@kwangju.co.kr

### 미성년자·정신지체 장애인 고용

### 성매매 알선...임신하자 강제 낙태

## 티켓다방 ‘나쁜父子’ 검거

미성년자와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다방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임신한 여종업원을 강제로 낙태시킨 부자(父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9일 속칭 ‘티켓다방’ 영업을 해오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광주시 서구 J다방 업주 김모(32)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아버지(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정신지체 장애인 이모(여·23)씨와 가출청소년 윤모(18)양 등 10대 미성년자 3명을 고용, 1회당 10만원의 화대를 받고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인 이씨가 성매매 후 차레 임신하자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 동서까지 썩여 불법 낙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자식들에 부담 안주려

### ‘투병’ 70대 목매 숨져

8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K 아파트에서 지모(여·79)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신고했다. 경찰은 대장암 말기로 3년째 투병생활을 해온 지씨가 자식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폭설로 지붕 위 눈 떨어져 車 파손 건물주인 배상책임 없다”

### 광주지법 판결

폭설로 인해 건물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처마밑으로 떨어져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시켰더라도 건물 주인은 차량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구길산)는 9일 “창고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모(40)씨가 장성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고 등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

도의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폭설이 내린 점,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아래로 떨어져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창고의 설치보존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장성군 장성읍 농협 창고 옆길에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창고 지붕 위에 쌓여 있던 눈이 떨어져 승용차 보닛과 천장이 찌그러져 차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제 3자에 허위진술·범인도피

### 전남도교육위원 당선무효형

### 광주고법 선고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 과정에서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토록 한 현직 교육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교육위원회 오병인(63)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인 만큼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오위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직 초등학교장 권모(6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위원 등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둔 교육청 직원 등을 동원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모두 4천여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목포지원에, 지난해 6월에는 해남의 한 횡집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남지원에 각각 기소됐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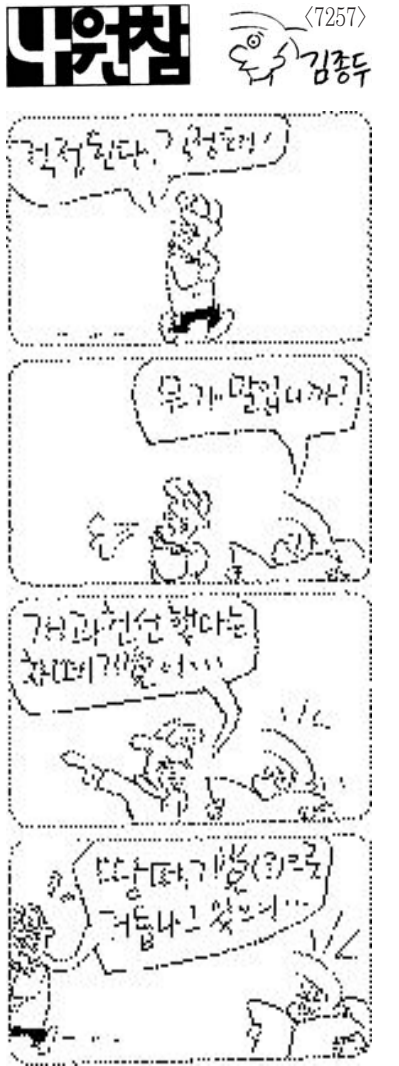
### 운영될 前 서부교육장

###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는 9일 광주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될 전(前)광주서부교육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지 않은 점,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광역시의 중점특관을 누리는데 3,813 최대까지! 8월 10일 14:00 ~ 15:00 수권선도시 367-9000



다들 권력·선정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건설도에 대한 KCC항오, 시스템항오 생산·시공 KCC항오, 시스템항오 생산·시공

농협 간부가 갯돌 불법 채취 상나팔 O-암도경찰은 국립공원 내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갯돌 3천여 점(사진)을 불법 채취한 K(47·암도군 소안면)씨를 9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O-K씨는 지난 2004년부터 국립공원지역인 소안면 비자리 해안에서 갯돌을 몰래 가지고 와 자기 집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는 것. O-경찰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자연석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주의를 촉구. /원도=정문조기자 ejchung@kwangju.co.kr

A large grid of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properties in Gwangju, including prices and agent information.